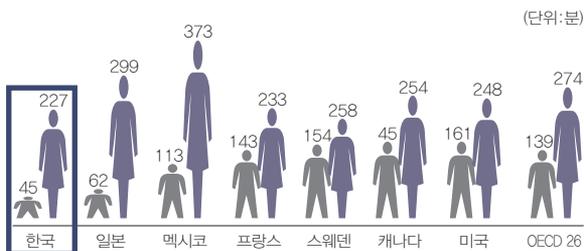


## 동등한 참여와 책임. '돌봄'과 '젠더' 다시보기

### I. 돌봄의 현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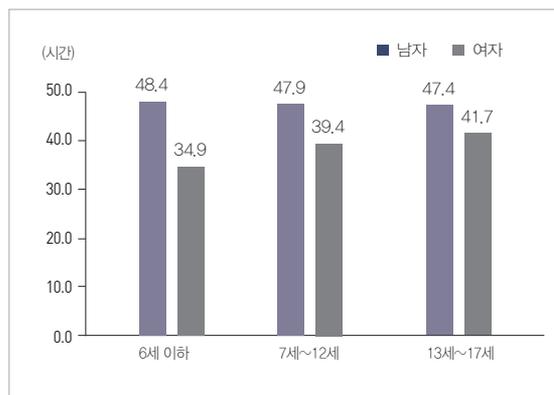
- 『2016 OECD 삶의 질 보고서』에 따르면 근로자의 노동시간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멕시코 다음으로 긴 것으로 보고됨. 연평균 근로시간(2015년 기준 2,113시간)을 살펴보면 한국 남성들이 집에서 자녀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하루 단 6분에 불과해 현실적으로 아빠의 돌봄 참여가 부족한 상황임을 보여줌.



[그림 1] 주요국 가사노동시간

- 2014년 통계청 조사결과에 따르면 17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남자 48.0시간, 여자 38.6시간으로 남자가 9.4시간 많은 것으로 나타남. 자녀의 연령에 따른 남녀 간 근로시간의 차이는 6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 13.5시간으로 다른 연령대보다 5시간 이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었음.

- 결과적으로 여성의 경우 자녀의 연령이 경력을 유지하는데 있어 중요한 고려사항이 될 수 있으며 이는 아이에 대한 양육책임 때문인 것으로 파악됨.



[그림 2] 자녀연령별 부모의 근로시간

※ 자료 : 통계청(2014), 『경제활동인구조사(2014)』 결과에 따른 시산 자료임



■ 육아로 인한 여성 취업의 한계

- '2016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의 결과에 따르면 여성 취업의 가장 큰 장애는 '육아 부담'<sup>1)</sup>으로 나타남.
- '여성취업'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여성은 88.7%로 남성 81.9%보다 6.8%p 높게 나타났으며 여성의 절반이 '가정 일에 관계없이' 직업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남성보다 3.2%p 높은 결과였음<sup>2)</sup>.

- 그럼에도 여성취업의 가장 큰 장애 요인은 남녀 모두 '육아 부담(47.5%)'으로 제시해 돌봄의 사회적 책임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실정임. 연령별로 살펴보면 30대에서 65.4%로 가장 높게 나타나 양육, 돌봄에서의 결정적 시기임을 알 수 있음. '사회적 편견 및 관행'은 연령이 낮을수록 장애가 된다고 생각해 진입장벽에 대한 부분으로 해석가능하며 '가사부담'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장애가 된다는 의견이 많았음<sup>3)</sup>.

〈표 1〉 여성취업에 대한 견해(201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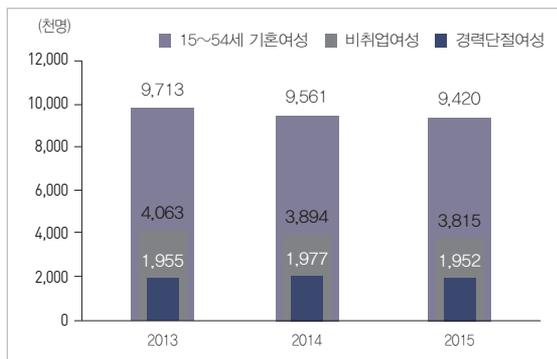
(단위 : %)

	계	직업을 가지는 것이 좋다	직업을 가지는 것이 좋다						가정 일에 전념하는 것이 더 중요	모르겠다
			소계	결혼 전까지	첫자녀 출산 전까지	자녀 성장 후	출산 전, 자녀 성장 후	가정일에 관계없이		
전체	100.0	85.4	100.0	3.4	5.7	14.8	24.8	51.3	6.9	7.8
여성	100.0	88.7	100.0	3.1	4.8	14.0	25.3	52.8	5.5	5.9
남성	100.0	81.9	100.0	3.7	6.7	15.8	24.2	49.6	8.3	9.8

※ 자료 : 통계청(2015), 「사회조사」

- 여성 경력단절 규모는 전년대비 비취업 여성(2.0%)과 경력단절 여성(4.0%) 모두 감소함. 2015년 4월 기준 15~54세의 기혼여성(942만명) 중 취업을 하지 않은 여성은 381만5천명으로 40.5%를 차지함<sup>4)</sup>.

- 15~54세 기혼여성 중 결혼, 임신 및 출산, 육아, 자녀 교육(초등학생), 가족 돌봄 등의 사유로 직장(일)을 그만둔 경력단절여성은 21.8%(205만3천명)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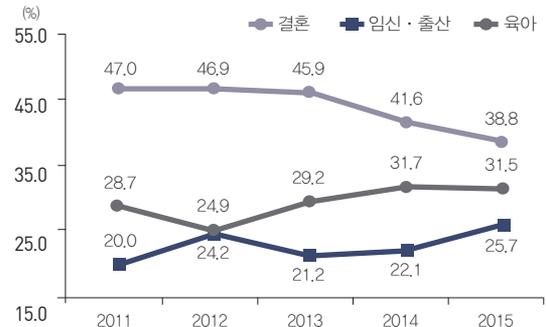


[그림 3] 여성 경력단절 규모

■ 여성 경력단절 사유<sup>5)</sup>

- 2015년 여성 경력단절 사유는 '결혼'이 36.9%로 가장 높았고, 이어서 '육아'(29.9%), '임신·출산'(24.4%), '가족 돌봄'(4.9%), '자녀교육'(3.9%) 순으로 나타남. '가족 돌봄'을 제외하면 '임신·출산'으로 경력이 단절되는 여성의 비율은 증가하고 있으나, '결혼'과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은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는 실정임.

- 특히 여성의 경우 남성에 비해 부모로의 책임이 더 크게 작동하며 양육 책임과 관련해 이른바 '나쁜 엄마'라는 도덕적 잣대가 가해지기도 함.



[그림 4] 여성 경력단절 사유

1) 통계청(2016), '2016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2016.6월 보도자료

2) 통계청(2016), '2016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2016.6월 보도자료

3) 통계청(2016), '2016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2016.6월 보도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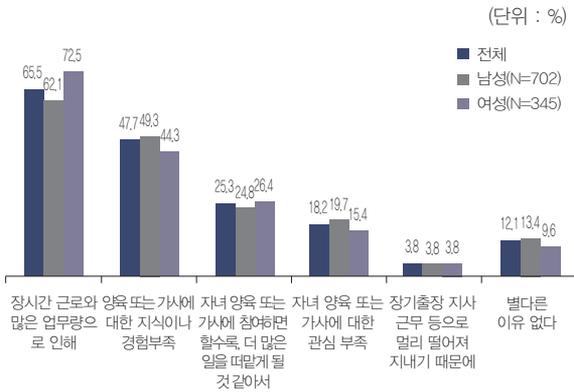
4) 통계청(2015), '2015 일·가정 양립 지표' 2015. 12월 보도자료

5) 통계청(2015), '2015 일·가정 양립 지표' 2015. 12월 보도자료

6) 「가족돌봄」은 2014년부터 조사되어, 2014년과 2015년 그래프 수치는 2013년 이전 자료와 비교 가능하도록 '가족돌봄'을 제외함

### ■ 남성의 육아 및 가사참여

- 맞벌이 남자의 가사노동시간은 5년 전보다 3분 증가, 여자는 6분(3시간 20분 → 3시간 14분) 감소<sup>7)</sup>함. 비맞벌이의 경우 5년 전보다 남자는 8분 증가하고 여자는 2분 감소함. 성별에 따른 육아와 가사참여에는 큰 변동이 없었음.



[그림 5] 육아와 가사참여가 어려운 이유

※ 자료 : 보건복지부(2016), '2015 저출산·고령화 관련 국민의식조사', 2016년 6월 20일 보도자료

### ■ 육아휴직 제도<sup>8)</sup> 활용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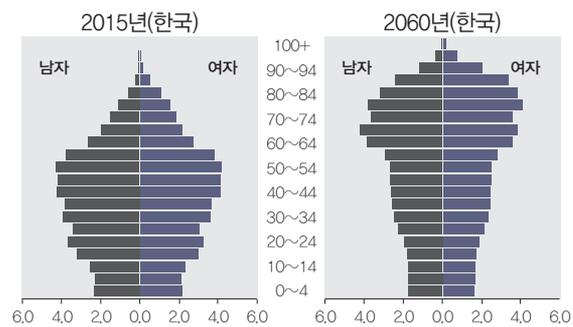
-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 현황은 2016년 9월말을 기준으로 남성 육아휴직자는 5,398명으로 전년 대비 53.2% 증가했으며 전체 육아휴직자(67,873명) 대비 남성비율은 7.9%로, 전년과 비교시 2.3%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아빠의 달<sup>9)</sup>” 이용자 수는 1,878명으로 전년 동기(967명) 대비 94% (1.9배) 증가하였고, 이 중 남성 비율은 88.6%(1,664명)임.



[그림 6] 남성육아휴직자 수 증가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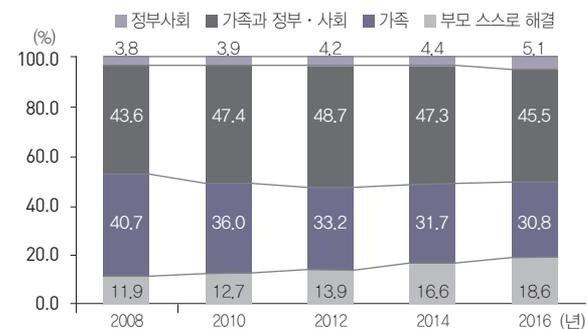
### ■ 육아만이 아닌 노인에 대한 돌봄 확장의 필요성

- 통계청이 2015년 7월 인구의 날을 맞아 발표한 ‘세계와 한국의 인구현황 및 전망’ 보도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고령인구 비중은 2015년 13.1%로 1960년(2.9%)에 비해 4.5배로 증가한 수준이며, 이후에도 계속 증가하여 2030년에는 24.3%, 2060년에는 40.1%로 높아질 전망이다.
- 최근 우리나라의 인구구조는 항아리형으로 이미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음. 그러나 아직까지 ‘돌봄’은 육아로 집중되어 사용되는 경향성이 높은 실정임.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돌봄 확장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그림 7] 우리나라 인구구조형 비교 : 2015년 vs 2016년

- ‘2016 고령자통계’에서는 부모 부양과 관련해 부모 스스로 해결하는 비율도 높았을 뿐 아니라 향후 부모 부양에 대한 견해도 점점 ‘스스로 해결’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sup>10)</sup>
- 우리나라에서의 노인 돌봄에 대한 정책적 고려는 1981년 「노인복지법」이 제정된 이후부터임. 이는 자녀세대가 부모를 모시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해 정책적으로 주목받지 못하다가 2000년 이후 고령화와 더불어 사회의 책임으로 논의되기 시작했음.



[그림 8] 부모 부양에 대한 견해

7) 통계청(2015), '2015 일·가정 양립 지표' 2015. 12월 보도자료

8) 현재 만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는 남녀 각각 최대 1년 간 육아휴직을 할 수 있고(부모 합산 최대 2년), 육아휴직 기간에 통상임금의 40%(상한 50만원, 하한 100만원)를 고용보험에서 지급

9) 남성 육아휴직을 촉진하는 정책으로,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자의 첫 3개월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최대 150만원까지)를 지원하는 제도

10) 통계청(2016), '2016 고령자통계', 2016.9월 보도자료

## Ⅱ. ‘돌봄’ 무엇이 문제인가

- ‘돌봄’은 ‘관심을 가지고 보살피다’라는 뜻임.
  - 많은 학자들<sup>11)</sup>에 의해 연령만이 아닌 신체상의 불편함으로 생애 일정 기간이나 혹은 전 생애에 걸쳐 일어나는 것으로 오랫동안 여성에 의해 제공되어 온 비공식적이며 비가시적인 특징을 갖고 있다고 정리됨.
  - 여성이 결국 양육과 돌봄의 주 담당자로 자리매김되는 경우가 많았으며 가족 내에서의 돌봄은 사회문화적으로 형성되어 온 성별이데올로기하에 여성들의 책임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음.
- 돌봄의 국가, 사회책임은 점점 커지고 있음. ‘돌봄의 사회화(socialization)’를 통해 ‘돌봄 노동’이 공식적으로 논의되는 계기가 됨. 결과적으로 돌봄은 자연스러운 여성의 일이 아니라 사회적 구성에 의한 것으로 성 불평등의 핵심 원인임을 알 수 있음<sup>12)</sup>.

### ■ 성별화 · 평가 절하된 돌봄

- 여전히 돌봄과 가사노동은 여성의 몫 임. 터틀(1999)<sup>13)</sup>은 돌봄에 대한 성 역할 구분이 성 차별 이론의 핵심이며, 성평등 실현을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로 간주함.
  - 프레이저(Fraser)는 보편적인 생계부양 모델(universal breadwinner)도 양육자 등가 모델(caregiver parity model)도 성평등 비전을 완전하게 달성할 수 없는 모델이며 근대적 젠더질서 해체를 통해 모든 노동자가 돌봄을 한다고 전제하는 보편적양육자 모델(universal caregiver model)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함(Fraser, 1994).
- 왜 여성은 ‘돌봄의 주체’로 인식되는가? 출산으로 인한 모성애로 인해 육아에서의 우월성을 갖게 한다는 분석이 있으나 결과적으로 돌봄에 대한 평가절하는 모성, 어머니 역할과 관련된다는 젠더편견에서 비롯된 것임. 결과적으로 탈성별화를 통한 돌봄 정책 수행이 젠더평등으로 나아갈 길임을 알 수 있음.

11) 강아수 · 신경아 · 박기남(2014), 『여성과 일:일터에서 평등을 찾다』, 동녘, p.345-402

12) 우리나라에서의 공보육 법제화는 2004년 이후 시작되어 2013년 이후 전 계층 무상보육 실시로 보육의 국가 책임이 실현됨.

13) 리사 터틀(1999), 『페미니즘 사전』, 유혜련 · 호승희 옮김, 동문선

14) 고용노동부공고 제 2016 - 216 호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공고문으로 16년 6월 28일자에 의한.

## Ⅲ. ‘돌봄’ 정책의 흐름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의하면 개정이유<sup>14)</sup>를 “육아는 여성만이 아닌 남녀 모두의 책임이자 권리라는 인식 조성을 위하여 육아휴직의 명칭을 ‘부모육아휴직’으로 변경하고, 여성 근로자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1년에서 최대 2년으로 연장, 부모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회까지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부모육아휴직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2회까지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 제시하고 있음.
- 중앙정부 돌봄 정책 중 아빠육아와 관련된 제도는 배우자 출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이 있음. 이러한 제도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등의 법률에 근거함.
- 여성가족부는 가족친화인증제도 운영, 가족사랑의 날 운영, 일·가정 양립을 중심으로 육아부담의 해소를 위한 환경조성에 집중 등 워킹맘·워킹대디 지원 사업 확대를 운영함. 고용노동부는 일가양득 캠페인, 아빠의 달 지원이나 일·가정양립, 민관 협의체 운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확대 등을 중심으로 구성됨.
- 고용노동부의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 업무 매뉴얼(2016)’에 따르면 ‘일가양득 캠페인’은 일하는 방식과 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핵심 5분야를 실천하는 캠페인으로 ‘육아부담 나누기’가 주요 분야 중 하나임. ‘육아부담 나누기’는 육아기 근로자의 이탈을 방지해 숙련 근로자가 근속할 수 있는 환경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수유실 설치 등이 해당함.

## IV. '돌봄' 확장을 위한 해외사례

### 육아 공동체

#### ■ 프랑스 주민단체 '빠랑부주(Parenbougé)<sup>15)</sup>

- IT 산업단지 내에 위치. 지난 2004년 4월 출퇴근 시간이 맞지 않아 기존의 보육시설에 아이를 맡기기 어려운 직장 여성들의 요구로 만들어졌음.
- 부모의 소득에 따라 차등 보육료를 지불하도록 해 저소득층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함. 빠랑부주가 성공적 보육 모델이 된 것은 부모들의 적극적 참여, 전문가의 조언, 지자체의 재정적 도움, 관련 단체의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음.

#### ■ 독일 매링담 센터(Familienzentrum Mehringdamm)<sup>16)</sup>

- 매링담 센터는 1976년 설립 당시에는 마더 센터로서 역할 하였으나, 2007년부터 Pestalozzi-Froebel-house의 재정적 후원을 통해 가족센터로 기능을 확대하여 운영함. 부모와 어린이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모든 지역주민에게 개방된 '가족카페' 운영이 핵심 기능임. 부모와 아이가 서로서로를 이해하고 배울 수 있도록 공간적 구성과 프로그램 운영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음.
- '아버지-자녀'의 놀이 프로그램 등 남성 육아 참여 확대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영유아와 부모 중심 센터 운영에서 벗어나 지역사회 거점 공간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영역을 확대함. 여성들을 위한 다양한 체육 그룹 운영, 지역사회 내 문제나 이슈를 중심으로 한 자조 그룹을 운영함.
- 운영비용의 대부분이 지방정부에서 지불되며, 비영리 공공단체가 특정목적을 위하여 보조하기도 함.

#### ■ 독일 피셔니즐 센터 (Familienzentrum Fischerinsel)<sup>17)</sup>

- 부모-아동 그룹 활동 뿐만 아니라 이민자등 지역 주민의 통합을 위한 사회적 상호 작용 프로그램이 운영됨. 다양한 문화권에서 온 이주민 간 교류 활동, 이민 여성과 소녀를 위한 Nähtätigkeiten 프로그램<sup>18)</sup>, 멘토링, 연극 교실을 통한 언어능력 향상, 이민 여성 대상 자전거 연습, 교통안전과 같이 현실적인 사회 적응이 가능한 프로그램 등등 참석자들에게 필요한 프로그램들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가고 있음.
- 부모들이 지역사회에 잘 정착하게 지원, 이웃들과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늘여주는 것이 센터의 주요 활동 방향임.
- 가족 센터 운영 프로그램 개발은 일반적으로 센터차원에서 개별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정부에 승인을 요청하고, 지역 내 다른 가족 센터와 정기적 모임 통해 유사한 프로그램을 만들어가고 있음. 하지만, 센터별로 특화된 프로그램이 있는데, Fischerinsel 센터는 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극장무대와 다양한 의상을 활용하여 연극 활동을 진행함.

#### ■ 독일 카스타니에날리 보육가족센터(Kita Kastanienallee)

- 지역사회 내 난민 유입이 급증한 것에 대응하여 2016년 8월부터 보육시설 기능에 가족센터 기능을 부가하여 운영하기 시작함. 사회복지사가 활동하는 가족센터로, 가족 간 그리고 가족 내 관계에서의 문제를 찾아내서, 보육시설에서는 다룰 수 없는 문제 해결을 시도함.
- 보육 시설이 아이 활동에 대해서 전적으로 교사에게 운영을 맡기고 교사가 아동에게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결정해서 알려주는 형태가 일반적임. 부모는 시설 입소 초기에 아동의 적응을 위해서 잠시 머무를 수 있었으나, 가족센터로 기능이 전환되면서 부모가 함께 활동하고 아이들의 문제를 가족의 틀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함.
- 일하는 엄마들이 보육시설과 연계된 가족센터 내에서 다른 가족을 알게 되고 휴식도 취하면서 아동을 돌볼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있음.

15) <http://blog.daum.net/grasswomen/14>

16)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16), '주요 정책 이슈(저출산·안전) 유관기관 협력기반 구축 국외출장 결과보고서', 미발행

17)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16), '주요 정책 이슈(저출산·안전) 유관기관 협력기반 구축 국외출장 결과보고서', 미발행

18) 의류, 침구, 커튼 같은 일상생활 필요한 물품을 수선, 리폼하거나 때로는 제조하기도 함

## 노인돌봄 공동체

### ■ 스위스 제네바, 프랑스 아그드, 영국 런던시의 '지역 주민과 함께 하는 식사'<sup>19)</sup>

• 스위스 제네바(Geneva)에서 진행되고 있는 “어라운드테이블(Autour d'une table)” 프로그램은 바로 이러한 문제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서, 2004년부터 진행되어왔음.

- 이 프로그램은 지역의 노인에게 질 좋은 식사를 제공하는 것과 동시에 지역 주민과의 교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것임. 구체적으로는 주 1회 자원봉사자와 노인들이 소규모의 그룹별로 동네 식당에서 함께 식사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됨.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는 식당까지 노인을 픽업하는 서비스도 책임지며 양질의 영양 공급은 물론, 소통의 즐거움을 제공함. 궁극적으로는 노인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사회적 고립감을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함.

### • 프랑스 아그드(Agde)의 “Les Foyers Restaurants”

- 지역 내 몇 개 식당을 거점으로 은퇴자들로 구성된 자원봉사자의 도움 하에 노인들이 편안하게 식사를 하고 모임 등의 활동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

### • 영국 런던시(London) “거리파티(StreetParty)”

- 노인뿐 아니라 이웃 간 융화와 교류를 목적으로 함. 이 행사의 활성화를 위해 “빅 런치(Big Lunch)” 프로그램을 함께 진행함. 빅런치는 매년 커뮤니티 주민들이 거리에서 함께 점심을 먹는 것으로 노인 세대에 대한 접근 활성화 및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대한 관심을 유도해낼 수 있는 좋은 매개체가 됨.

### ■ 영국 데번주(Devon) ‘치매노인 독서토론 모임’<sup>20)</sup>

• 치매노인을 위한 프로젝트로 데번주의회는 치매환자들의 읽기 능력을 향상시켜 그들의 기억력과 상상력을 자극시키고자 자선기관인 ‘The Reader Organization’과 협력해 진행하는 프로그램임.

### ■ 프랑스 파리연대(Le Pari Solidaire)<sup>21)</sup>

• e pari solidaire는 비영리기구로 2004년 4월 창설되었으며 청년과 노인이 함께 생활할 수 있는 세대통합주거모델의 선도적 역할을 견인함. 홀로 사는 노인이 직면할 수 있는 위험상황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으며 청년과 노인이 함께 거주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통해 청년을 비싼 임대료의 부담을 덜고 유휴공간을 이용하여 함께 생활할 수 있는 동거인과 부가적인 수입을 획득함.

• 파리연대의 주거공유 프로그램은 노인의 고독, 사회소외, 관계망 단절과 청년의 주거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통합적 모델이라 할 수 있음. 노인은 남는 방을 시세의 50%이하의 저렴한 임대료로 대학생에 제공하고, 대학생은 청소, 장보기, 스마트기기 학습 등 생활서비스(말벗되어 드리기, 문단속 등 안전관리, 간단한 가사돕기 등)를 제공함.

• 파리연대에서 실시하고 있는 세대통합 주거모델을 통해 우리나라의 노인복지시스템도 노인과 청년의 주거와 돌봄 연대, 노인과 아동의 여가·놀이프로그램, 노인과 다문화 가정의 사회관계망 형성 등 다차원적인 접근과 개입을 필요할 것으로 보임.

### ■ 독일 멀티제네레이션하우스<sup>22)</sup>

• 노인과 돌봄(Alter und Pflege); 50세 이상 인구의 자발적 참여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와 기회를 제공함.

• 이 프로젝트는 지역사회로 확장된 집(Mein Erweitertes Zuhause)의 의미를 강조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공간의 구성과 프로그램 제공을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음. 이 프로젝트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의 운영 자체 보다는 지역주민들이 편히 쉴 수 있고 쉽게 만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야 한다는 점을 중요하게 여김. 이러한 부분은 지역공동체와 관련한 기관 및 프로그램의 운영에서 참고할만한 부분임.

• 우리나라의 사회복지관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함.

19) 정은하 외(2014), 서울시 고령친화도시 제2기(2016~2020) 실행계획 추진을 위한 해외사례 연구

20) 정은하 외(2014), 서울시 고령친화도시 제2기(2016~2020) 실행계획 추진을 위한 해외사례 연구

21) 서울시복지재단(2014), 프랑스 독일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

22) 서울시복지재단(2014), 프랑스 독일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

■ 독일 레겐스부르크 좋은이웃(Regensburgs Nette Nachbarn : ReNeNa) 프로그램<sup>23)</sup>

- 지역사회 및 거주지에서 독립적인 생활이 충분히 가능하도록 도와주고, 고립감 해소를 목적으로 함. 자원봉사자를 조직하여 긴급상황에서부터 사소한 일상생활 문제에 대한 도움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함.
- 주요 프로그램 : 자원봉사자 능력을 활용하여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이 가능하지만, 특히 주거 개선과 관련된 서비스는 편안한 주거환경 조성을 통해 사회적 고립감 해소에 기여하므로 중요하게 생각함. 노인이 생활하는 주거환경에 관심을 가지고 관련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있다는 점을 눈여겨 볼만함. 주거환경 개선을 노인의 고립감 해소 및 지역사회 통합의 방법으로 보고 있음.
- 시에 노인주거 개선을 위한 설계전문가가 별도로 배치되어 있다는 점은 노인복지서비스 운영 방향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임.
- 시사점
  - 독거노인 및 부부가구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력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에 대한 접근은 노인복지서비스에 있어서 필수적이기 때문에 향후 우리나라의 노인주거 정책 추진과정에서도 이러한 점이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마을만들기 사업 등이 진행되는 소규모 지역에서 이러한 모델의 적용 방법을 적극적으로 고려해볼 수 있음.



■ 캐나다 The Meadows School Project<sup>24)</sup>

- MSP는 2000년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 중남부 지역의 콜드스트림(Coldstream) 지역에서 시작된 일종의 공간 공유(shared site) 프로그램임.
- 세대가 연계하는 공간 공유 프로그램의 하나로 볼 수 있는데, 이 프로그램은 지역 공동체 기반 학습(community-based learning)을 중요시하던 교사 샐런 맥켄지(Sharon MacKenzie)의 아이디어로부터 출발함.
  - 세대 간 공간 공유 프로그램은 아동 혹은 청소년들이 나이든 성인들과 같은 공간에서 지속적으로 상호 교류할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의미함.

■ 프랑스 '모나리자'(MONALISA)<sup>25)</sup>

- 프랑스의 '모나리자' 프로그램은 고독사 예방을 위한 국가적 활동 사례임.
- 프랑스의 경우 1인 가구 중 노인층의 비율이 다른 세대에 비해 현저하게 높은 상황으로 주변과의 왕래가 적어 독거노인들의 신체 및 정신건강 악화, 불면, 우울증과 자살시도 등의 문제를 안고 있음.
- 2013년 9월 공공기관과 민간협회와 노인관련 각종 기관으로 구성된 국가적 차원의 활동단체 MONALISA(노인들의 사회적 고립에 대응하는 국가활동)를 조직함.
  - 독거노인들의 사회적 배제를 최소화하고 노인과 다른 세대 간의 사회연대 증진을 목적으로 함.
  - 주 업무는 독거노인에 대한 정기적 방문, 노인의 사회관계 증진 프로그램 운영, 심리상담 및 대학생과의 동거 프로그램 운영 등임. 지역사회의 활동은 'relais MONALISA'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2014년 255개 참가기관과 33개 지방정부, 178개 시민활동이 진행되고 있음.
  - 예산 : 중앙정부에서 연간 150-200만 유로 지원

23) 서울시복지재단(2014), 프랑스 독일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

24) 홍영란(2014), 세대통합을 위한 교육의 역할 : 해외 우수사례 분석 및 시사, 한국교육개발원

25) 서울시복지재단(2016) 복지가이슈 Today vol.42

■ 호주 Kids Interacting with The Elderly<sup>26)</sup>

• 성 미카엘대학(St. Michael's Collegiate School)의 영·유아학습센터가 주관하는 Kids Interacting with The Elderly(KITE) 프로그램은 오스트레일리아연방에 속한 태즈메이니아 섬 킹스턴에 위치한 노인시설과의 연계·협력을 통해 운영되고 있음.

• KITE 프로그램은 프로그램 자체가 세대통합에 초점을 두고 고안된 것으로 “세대통합의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행복감과 인류애를 증진하고, 젊은 세대와 노인세대에 대한 상호 존중을 증진”시키고자 함.

– KITE 프로그램 학습은 생애의 특정 시기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전 연령대에 걸쳐 이루어질 수 있다는 평생교육의 철학을 바탕으로 하며, 모든 아이들의 비판적 사고력, 학습 및 삶의 즐거움, 높은 자존감을 습득하거나 경험하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둬.

– 진정한 학습공동체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에 거주하고 있는 노인세대를 보다 적극적으로 포용할 필요가 있음을 인식하고, 노인세대와 어린 세대가 지역사회 내에서 함께 할 수 있다는 장점을 활용해 세대통합 프로그램을 개발함.

– 어린 세대와 노인세대는 함께 활동을 공유하고, 서로 돌봐주고 돌봄을 받는 즐거움을 경험하게 됨.

– KITE 프로그램은 5세 이하의 유아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실시되는 활동들은 대부분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놀이가 주종을 이룸. 놀이 활동에 노인들이 함께 파트너로 참여하는 것이 KITE 프로그램의 주된 운영방법임. 대표적인 활동에는 독서, 블록 쌓기, 공 던지기, 비눗방울 놀이, 점토 만들기, 그림 그리기 등이 포함됨.

■ 뉴질랜드에서 사회적 돌봄과 관련된 이론과 아이디어는 1980년대 이후 변화됨. ‘지역사회 돌봄(community care)’의 도입을 통해 노인 돌봄 영역의 경우 ‘살던 곳에서 나이들기(ageing in place)’ 개념은 정책입안자들과 실천가들에게 가장 큰 관심을 얻게 됨. 우리나라를 비롯해 최근 이와 같은 살던 지역내에서의 돌봄, 나이 들에 대한 논의가 확장되고 있는 추세임.

## V. 마무리

■ 전 세계적으로 ‘보살핌’의 가치에 대한 논의가 사회화, 공공성 확보를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음.

• 일본은 저출산 담당 장관인 ‘1억 총활약담당상’을 임명하기도 하고, 앞서 보았던 프랑스에서는 ‘아이는 여성이 낳지만 사회가 함께 키운다’는 캠페인을 실시, 돌봄에서의 사회적책임이 강화되고 있음.

■ 우리나라의 돌봄 관련 정책은 ‘결혼 한 여성’ 중에서도 아이가 있는 여성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양성평등기본법」에서는 모성만이 아닌 부성권에 대한 강화가 제시되어 제도로의 돌봄의 사회화는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일·가정 양립 정책이나 모성보호 정책이 여성정책으로 한정되어 논의되는 경우가 많음. 여성만이 주 사용자인 정책은 결국 일부의 것, 주변화 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만큼 향후 그 대상과 범위가 확장될 필요성이 있음.

• 향후 정책의 종합적 추진을 위해 추진체계의 정비가 필요함. 다 부처에 흩어져 있는 정책을 종합적으로 분석, 제시, 정보제공이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음.

• 장시간 노동관행에 대한 변화, 일·가정 양립의 사각지대 개선 등 ‘같이’ 하는 돌봄, 돌봄의 사회적 책임 확대를 위해 양성 모두를 대상으로 한 정책 집행, 감시, 홍보 등이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보임.

〈집필 : 이선민 부연구위원〉

26) 홍영란(2014), 세대통합을 위한 교육의 역할 : 해외 우수사례 분석 및 시사, 한국교육개발원